



한국 현대문학작가 미주 순회 낭독회

# 소설가 하성란, 한유주 씨 미국 5대 도시 돌며 작품 낭독

미국 워싱턴 대학, 미네소타 대학, 조지아 대학 등에서 한국문학 행사 열어



지난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젊은 여류 작가 2인이 미주 순회 낭독회에 나섰다. 이 행사는 (재)국제교류진흥회가 1999년부터 주최해오고 있는 행사로서, 한국문학을 해외에 널리 소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옆집여자>,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의 저자인 하성란 씨와 <달로>, <얼음의 책>의 저자 한유주 씨가 참가했으며, 한국문학번역가이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한국문학을 지도하는 브루스 풀턴 교수가 동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작가들은 시애틀 소재 University Book

Store에서 청중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미 중·서부의 5개 대학(Washington University, UC-Irvine, Brigham Young University, Minnesota University, Georgia University)을 방문하여 한국문학을 직접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낭독회는 두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한국어로 읽고, 이어 브루스 풀턴 교수가 이를 영어로 낭독하는 형식으로 여섯 차례 진행되었으며, 현지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수강생, 현지 교민들과 한국문학 동호인들이 참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작품 낭독 후에는 청중들과의 만남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 들려주고 한국문학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연도별 참가자>

1999년	최인호, 박완서
2000년	최인호, 오정희
2002년	윤홍길, 강석경
2003년	임철우, 양귀자
2004년	공지영, 이인화
2006년	최 윤, 최수철
2007년	김영하, 서하진
2008년	이혜경, 김애란
2009년	편혜영, 조경란
2010년	하일지, 천운영
2011년	하성란, 한유주

### <낭독회 일정>

일정	행사장 / 학교	도시명
11월 02일(수)	University Book Store	Seattle
11월 03일(목)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11월 07일(월)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Irvine
11월 09일(수)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11월 11일(금)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11월 14일(월)	University of Georgia	Atlanta

## A Reading Tour of America Featuring Contemporary Korean Authors Novelists Ha Sung-Ran and Han Yu-Joo read from their works during visits to five US cities

Readings were held at Washington University, Minnesota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Georgia, among others.

From November 2 to 16, two young writers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participated in a reading tour in which they visited five universities in the USA. The reading tour, an annual event, has been hosted by International Communication Foundation (ICF) since 1999, with the aim of introducing and disseminating Korean literature abroad.

This year, Ha Sung-Ran, writer of <옆집여자> and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and Han Yu-Joo, writer of <달로> and <얼음의 책>, took part in the event. Bruce Fulton, a Korean literature translator and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accompanied them.

The reading tour began at University Book Store in Seattle, and continued on to five universities where the writers personally introduced Korean literature to American audiences.

Each reading event began with a reading by the two Korean writers from their works and then Professor Fulton read the same texts in English. The audiences were mostly professors and students of Korean literature at local universities, local Korean residents, and members of the Korean literature community, and they showed great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nd the readings. After the readings, the writers took time to share their ideas about their works and exchange thoughts about Korean literature.





## 미주 순회 낭독회를 다녀와서...



한유주 작가

이번 여행이 내게는 두 번째 미국행이었다. 말끔히 정리된 여정표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많이 들어본 적도 없는 도시들을 확인하자 묘한 기대감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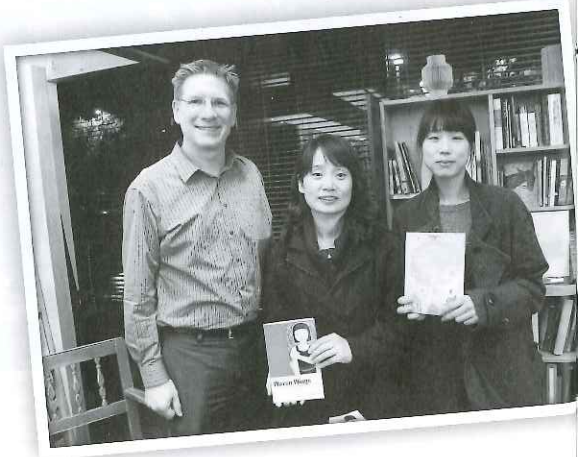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을 시작으로 다 합해 다섯 도시의 다섯 대학을 방문하는 여정이었다. 각각의 대학마다 낭독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성란 선배는 <옆집 여자>와 <쫓겨 날개>, 그리고 <곰팡이 꽃>을, 나는 <재의 수요일>과 <흑백 사진사>를 읽기로 되어 있었다. 내게는 낭독회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책은 읽는 편이 듣는 것보다 낫다는 고정관념이 부지불식간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낭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끔 애매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했지만, 끝까지 참을성 있게 낯선 언어로 된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가졌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한국에서였다면 쉽게 듣지 못했을 법한 질문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실 완전히 낯선 질문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계문학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는 점이 달랐다. 미국의 출판시장에는 번역문학보다 자국어문학이 대단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적은 비율로 할당되어 있는 번역문학 시장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외하고 나면 그들이 아는 외국문학, 다시 말해서 아시아 문학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항상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단점보다는 많은 장점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왔다. 영어권뿐만 아니라 유럽권이나 아시아권의 문학(혹은 예술, 사회, 정치 등)을 비교적 고루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문학의 보편성, 혹은 세계성에 대한 질문을 해오자 다소 답답하면서도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답변을 할 시간은 예상대로 부족했다.

그러나 물론 무거운(?) 생각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로보를 들고 싶다. 물론 교도들이 학생수의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브리검 영 대학이 있는 도시였다. 캐스캐이드 산맥으로 둘러싸인 프로보는 조용하고 서늘한 대기에 감싸여 있었다. 브리검 영 대학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곳곳에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커플들이 눈에 띄었다.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선해보였다. 물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내게 준 첫인상은 생각보다 놀라웠다. 대개 1년 가량 한국에 나와 선교활동을 한 적이 있는 그들은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한국어로 불편함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미국이 큰 나라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의 미국은 생각보다 거대했다. 보름간의 여행 동안 시간이 네 번 바뀌었다.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어바인, 프로보와 미네아폴리스, 그리고 조지아 대학이 있는 애신스까지, 다섯 도시를 방문했다기보다는 다섯 나라를 여행했다는 기분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서도 즐거웠다. 언제고 그곳들을 다시 찾아가게 될까. 나는 수많은 메일 주소들을 수첩에 적어 돌아왔다. 소중한 인연들이다. 이번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국제교류진흥회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폴턴 선생님, 그리고 하성란 선배에게 감사를 드린다. 어쩌면 뻔하게 들릴 수 있을 감사인사일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뻔한 말 속에 진심이 있는 법이다.



## Thoughts upon Returning from The 2011 ICF Reading Tour

- Yoo-Joo Han

This was my second trip to the United States. As I checked the cities on the itinerary, which I had not heard much about or been to, I felt a strange feeling of anticipation.

Starting from Washington University, the object of the tour was to visit five university campuses in five cities. At each university, an authors' reading event was scheduled. Ha Sung-Ran was scheduled to read from <옆집 여자>(The Woman Next Door), <쫓겨 날개>(Waxen Wings), <곰팡이 꽃>(The Mold Flower), and I was scheduled to read from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and <흑백 사진사>(Black and White Photographer). I was a bit reluctant about the reading event since I still fostered an unconscious belief that books were to be read, not heard. The people attending the reading events sometimes made uncertain faces; however, they listened patiently to the unfamiliar language until the end. Then questions followed. There were not a great number of questions, but quite a few of them were interesting since I'd never encountered them in Korea. One of them was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Actually, people often asked me questions about that topic. This time, however, it sounded like something new in that it was asked by people well-versed in world literature. In the U.S., vernacular literature takes up a larger percentage of the market than translated literature. The market for translated literature is therefore already so small that only a small number of Asian works of literature could be known, except of course for novels by Haruki Murakami. I have always thought the fact that I was born in Korea came with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since I could access works from Asia and Europe as well as America. Hence, I had mixed feelings of frustration and excitement when they asked about the universality and internationality of

Korean literature. I had a lot more to say but did not have enough to time to express all of my thoughts.

Of course, not all of my thoughts were of such a serious nature. If someone asked me to pick out the most memorable city of the trip, I would choose Provo, which is an hour-and-a-half-drive away from Salt Lake City. Brigham Young University, whose students are mostly Mormons, is located in that city. It was surrounded by Cascade Range, which was calm and covered with chilly air. When I entered the campus, I could see couples praying with their foreheads pressed together here and there. The students I met in the lecture room looked more warm-hearted than any group of people I had ever seen before. Of course, I know that it takes time to get to know a person, but nevertheless, my first impression of those students was quite impressive. Since they had done missionary work in Korea for about a year, they could speak Korean fluently. We were able to hold a conversation in Korean without difficulty, though it was for a short period of time. I knew that the U.S. was a big country. However, through this trip, I realized the actual size was bigger than I had thought. During the fifteen-day trip, I traveled through four different time zones: from Seattle and Irvine to Provo to Minneapolis to Athens, where the University of Georgia is located. I felt like I had traveled to five countries, not five cities, and it made me feel rather more pleased than tired on the plane back to Korea. When could I go there again? I came back with a lot of email addresses from people I met during the tour. Those addresses will be valuable ties connecting me with those people. I appreciate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Foundation, Professor Bruce Fulton who spared no pain in making the tour a success, and Ha Sung-Ran. Although perhaps this expression of gratitude could be heard just as a cliché, there always has truth in it.